

# 한국에서의 공자아카데미 운영과 활동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김형기·조대원(대진대학교)

## 논문요약

본 연구는 10여 년 동안 운영된 공자아카데미의 운영과 활동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듬어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공자아카데미(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는 중국문화원과 다른 별도의 기구로, 전세계에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간기구의 성격을 지녀 그 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세워질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 다수의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외국 교육기관의 소속기구이지만, 중국 공자학원 총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전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본 논문의 사례인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의 주요업무인 중국어교육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대부분 초보자들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또 한국 수강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없다는 점도 지적사항의 하나이다. 공자아카데미가 중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강사와 교재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에게 여러 방법으로 중국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앞으로 공자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업무 범위를 뛰어넘어, 두 나라 사이의 상호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상호 문화교류기관으로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공자아카데미, 중국어교육, 파견강사, 문화행사, 상호교류, 발전방향

## I. 머리말

한국에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운영된 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2004년 처음 서울에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된 뒤,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선 결과 2017년 10월 현재 23개의 공자아카데미와 5개의 공자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에 설립된 공자아카데미 수를 그 나라의 인구에 견주어보면 많은 개수이다. 이제 한국의 공자아카데미에 대해서 보다 깊은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공자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공자아카데미 운영의 목적,<sup>1)</sup> 각 공자아카데미의 발전 상황과 활동 내용,<sup>2)</sup> 공자아카데미에 대한 인식,<sup>3)</sup> 앞으로의 발전방향<sup>4)</sup>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자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sup>5)</sup> 현재 중국의 공자학원총부에서는 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중이고, 이에 따른 다방면의 연구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공자아카데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밝혀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중국의 대외정책이라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자아카데미의 성격과 전체 공자아카데미의 규모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에

1) 차미경, “중국문화원 ‘공자학원’의 설립과 중국문화의 세계화 전략” 『중국문화연구』 10, 중국문화연구학회, 2007; 신진호, “중국문화의 세계화 전략-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중심으로” 『중국지식네트워크』; 고영희, “중국과 대만의 문화비교-공자학원과 대만서원을 중심으로” 『大同哲學』 65, 大同哲學會, 2013; 김일수·최형룡,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자학원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73, 2014; 李保高, “중국 공공외교와 공자아카데미” 『중국어문학논집』 88, 중국어문학연구회, 2014; 전가림, “중국의 소프트파워 발전전략과 그 영향력 : 공자학원과 방송 미디어매체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50, 2010.

2) 錢旣, “韓國內孔子學院的運營狀況及效果” 『한중인문학연구』 35, 2012.

3) 최은진,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된 공자학원 Confucius Institutes 이미지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 『중국학연구』 72, 2015, 중국학연구소; 임규섭, “한국의 공자학원(孔子學院)에 대한 인식-신문, 일반인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30,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7.

4) 김은환, “중국 공자학원의 현지 법인화에 대한 고찰” 『中國法研究』 21, 2014, 중국법학회.

5) CHEN PENG·박수경, “대외중국어 교사의 역량 분석 : 한국의 공자학원 교사를 중심으로” 『韓國敎員敎育研究』 31-3, 2014.

비해 각 나라의 공자아카데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교적 많은 수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공자아카데미의 운영상에 대해서도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공자아카데미의 운영과 활동을 더듬어보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설립된 지 10년에 이른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를 사례로 삼았다. 한국의 공자아카데미는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특별히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검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현재 공자아카데미 운영상에 중국 파견 인원에 대한 비자발급과 같은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상황에 따라 왜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의 사례 연구는 한국 내 공자아카데미의 구체적인 운영현황 파악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II. 공자아카데미의 명칭과 설립 방식의 특징

중국은 여러 면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그 위상에 어울리는 세계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지난날 중국의 위상을 오늘에 복원하고,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계획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공자아카데미는 이러한 시기에 중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하나로 구상되었다. 그 운영을 통해 중국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 나라에 중국을 이해하는 인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나라는 수교한 나라에 문화원을 설립한다.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역할은 자국의 문화를

상대의 나라에 널리 알리는 데 있다. 대부분 수도에 자리하며, 필요에 따라 주요 지역에 추가로 설립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문화원과 다른 이름의 공자아카데미가 구상되었다. 문화원과 이름을 달리하면서도 설립 수에 제한받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다.

## 1. 명칭

공자아카데미를 중국에서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이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CONFUCIUS INSTITUTE’이다. ‘공자아카데미’는 한국에서 불리는 명칭이다. 중국에서 설립을 계획하면서 그 명칭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다. 이미 각 나라에 중국문화원이라는 기구가 존재하는데,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구의 성격과 명칭이 정해졌다.

‘문화원’의 명칭은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부르고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자어로 문화원(文化院)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문화원’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CULTURAL CENTER’로 표기한다. 중국 또한 ‘중국문화원’ 또는 ‘중국문화중심’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한국과 같이 ‘CHINA CULTURAL CENTER’이다. 러시아(RUSSIA CULTURE CENTER), 이탈리아(Istituto Italiano di Cultura)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프랑스(Institut culturel Français)의 경우는 CENTER 대신 INSTITUTE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 문화원의 명칭은 나라이름, 문화(CULTURE), 기구(CENTER, INSTITUTE)의 합성어이다. 명칭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과 스페인의 문화원 명칭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독일은 ‘GOETHE INSTITUT’라 하고, 스페인은 ‘Instituto Cervantes’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합성 명칭의 문화(CULTURE)에 해당되는 자리에 그 나라의 세계적인

문호의 이름을 넣었다.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저명인사의 이름을 넣어 문화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적 인사를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 새로운 기구의 명칭을 정하면서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가 참고되었다.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명칭에 넣을 경우에 일반적인 문화원 명칭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라는 점도 아울러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공자(孔子, CONFUCIUS)였다.

이렇게 하여, ‘GOETHE INSTITUT’와 ‘Instituto Cervantes’를 본받고, 중국 문화원(CHINA CULTURAL CENTER)과 다른 ‘CONFUCIUS INSTITUTE’라는 새로운 기구의 이름이 생겨났다. ‘CONFUCIUS INSTITUTE’는 중국의 문화원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미 ‘CHINA CULTURAL CENTER’가 존재하고, 별도의 ‘CONFUCIUS INSTITUTE’는 명칭이 다르듯이 별개의 기구라고 해도 무방하게 된 것이다.

‘CONFUCIUS INSTITUTE’는 중국어로는 ‘孔子學院’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학원(學院)은 종합대학의 단과대학이나 전문대학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인다. 새로운 기구가 문화·교육 방면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INSTITUTE’를 교육기관을 뜻하는 ‘학원(學院)’으로 명명한 것이다.

공자학원(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은 문화원과 다른 기구이며,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보급한다는 점에서 문화원과 역할이 다르지 않다. 보다 많은 곳에 더욱 많은 기구를 설립하여 효과적으로 중국을 알리겠다는 의도에 맞는 새로운 이름의 기구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름만 다르고 역할이 같은 두 종류 기구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자학원(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이라는 공식 명칭을 한국에서는 ‘공자아카데미(CONFUCIUS INSTITUTE)’라고 부른다. 학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경우에 사설학원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붙여진 이

름이다. 공자학원이라고 하면 공자나 그 사상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자아카데미라고 하여도, 한국인에게는 이 기관이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자를 중국의 문화교육 방면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미 한국과 중국의 경계를 초월한 위대한 사상가로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를 앞에 두고, 그 뒤에 학원이나 아카데미라고 붙여 부르다하더라도, 현재 많은 한국인들은 공자아카데미를 공자의 사상 또는 유학을 공부하는 곳으로 이해한다. 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명칭이고, 공자를 잘 알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일부 나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한국에서 ‘공자아카데미’와 그 역할이 제대로 인식되기까지는 아직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어쨌거나, 세계 여러 나라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국을 이해하는 인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에서 구상된 공자아카데미(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라는 새로운 기구가 생겨났다.

## 2. 설립 방식

공자아카데미는 설립 방식에 특별한 면이 있다. 애초부터 중국 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설립하려는 공자아카데미의 설립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석시키려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즉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진 기구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민간기구적 설립 방식을 취하였다.

우선 설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교육기관과 외국의 교육기관 사이의 공자아카데미 설립에 대한 합의가 기본 전제가 된다. 중국과 외국 양 교육기관 사이에 〈공자학원 설립에 관한 협력 집행에 관한 협의회(關於合作建立孔子學院的執行協議)〉가 체결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외국의 교육기관과 중국 공자학원총부(孔子學院總部/中國國家漢辦 中國國家漢語推廣領導小組라고 함)와의 〈공

자학원 합작 설립에 관한 협의서(關於合作設立孔子學院的協議)가 체결되어 야 비로소 설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중국과 외국의 각 교육기관과의 협이가 우선의 기본이 되고, 이 협의를 국가기관인 공자학원총부가 승인해주는 형식이다. 민간 기관들이 주도하여 체결한 협의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중국의 교육기관과 공자아카데미의 설립을 희망하는 외국의 교육기관과의 협이가 이루어지지만 하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많은 수의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문화원과는 전혀 다른 설립 방식이다. 중국의 합작 교육기관은 공자학원총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집행기구로 역할을 한다.

공자아카데미의 제반 경비는 원칙적으로 외국 측과 중국 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협의서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측은 공자아카데미의 사무실과 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또 상근할 수 있는 사무요원을 파견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외국 교육기관 산하기구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제반 시설과 행정 요원을 외국 측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민간기구로서의 외형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중국 측의 부담 경비는 협의서에 따라 공자학원총부에서 지원된다. 운영비용 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파견된 관리요원과 교강사의 임금과 항공료, 의료보험료 등이다. 사업 면에서의 부담은 교재, 각종 도서, 강의에 필요한 음향기기 등의 교육 자료와 중국어강의 그리고 중국 문화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설립의 전제인 협의서 체결 주체인 중국 교육기관의 경비 부담은 전혀 없고, 사업비가 대부분인 지원 경비는 공자학원총부로부터 외국 교육기관에 직접 전해진다.

공자아카데미가 현지에서는 일반 교육기관에 소속된 기구인데, 그 사업비의 대부분은 중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다. 물론 현지의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사무실과 강의실을 마련해야 하고, 그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

다. 또 공자아카데미에 파견된 행정요원의 인건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반면, 중국 정부 측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요원, 즉 중국 측 원장과 중국어 교강사의 임금을 지급하고, 중국 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여, 외국 현지에서는 민간적 기구로 비교적 넓은 활동영역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중국 정부가 부담하는 특별한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자아카데미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외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설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국제성을 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파견되는 인원의 비자문제가 그 예에 해당된다. 이 일은 민간단체인 공자아카데미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중국의 공자학원총부가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도 어렵다. 이미 민간기구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직접 나설 경우에는 상대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해결의 책임을 모두 공자아카데미에 맡겨둘 수만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아카데미의 명칭과 설립 방식에서 보듯이, 이 기구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 사이의 협의를 통해 설립된 문화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외국의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한 민간기구라고 하여 그 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세울 수 있다. 전 세계에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려는 전략에 부합된 기구인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 많은 공자아카데미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설립 방식의 특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Ⅲ. 조직·인원 및 재정 운영

#### 1. 조직·인원

##### (1) 이사회

표면적으로 공자아카데미는 양국의 각 교육기관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소속 기구가 된다. 운영의 주체도 당연히 외국의 교육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공자아카데미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외국 각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므로,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일관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명시적인 외국의 민간기구와 실질적인 중국 주도의 운영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중국과 외국 각 교육기관 사이에 맺어진 협의서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사회는 양국 교육기관의 책임자들로 구성되고, 공자아카데미의 주요의사 결정기구이다. 이사회가 운영의 주체라고 하여 공자아카데미의 민간기구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중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사의 수는 5인 정도이고, 외국 측의 3명과 중국 측의 2명으로 이루어지며, 그 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장은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된 교육기관의 책임자가 맡고, 부이사장은 중국 측 기관장이 맡는다. 외국 교육기관의 소속기구인 만큼 많은 이사의 수와 이사장 직책을 외국에 주어 형식상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의결의 규정을 2/3로 하여 두 기관의 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실제로 의사의 결정이 어렵다. 이 이사회가 공자아카데미의 형식상 운영의 주체이다.

이사회에서는 공자아카데미 운영상의 크고 작은 일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있다. 우선 연도별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비준해야 한다. 한 해 예산과 결산 업무를 위해서라도 한 해에 한 차례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정기이사회에서 한 해의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지난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예·결산안은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총부에 보고된다. 이의 최종적인 승인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자학원총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 예산과 결산의 경우에서 보듯이, 운영에 관련된 주요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공

자학원총부의 승인을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다. 한 해의 사업 계획, 양측 원장의 임용과 파견, 사무실의 확대와 이전 등이 대체적인 협의·의결 사항들이다. 이사회가 공자아카데미의 운영 주체이면서도, 그 의사결정과 시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공자아카데미의 본질적인 성격과 관련되는 점이다.

## (2) 원장과 행정요원

공자아카데미의 근무 인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책임자인 원장과 행정 요원, 그리고 교육 담당자인 교·강사 등이다. 원장은 외국 측과 중국 측에서 각각 파견된 두 사람이다. 먼저 외국 측의 원장은 교육기관에서 임명된다. 공자아카데미라는 기구의 성격에 따라 기관 안에서의 위상이 정해진다. 부속기관일 경우에는 부속기관장이 되는 것이고, 임시기구일 경우에는 역할의 성격이 비슷한 기관장이 겸임하기도 한다. 부속기관장으로서의 원장은 중국과 관련된 전공 교수를 보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겸임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국제교류의 기능을 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맡는다. 학교의 조직체계에서 공자아카데미가 어떤 위상에 있는가는 그 중요성에도 직접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부속기관이다.

중국에서 파견되는 중방원장은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쓰고 있는 중방원장이라는 호칭은 애초에 없었다. 이사회의 직책에서와 같이, 외국에서 임명된 행정책임자가 원장이고, 중국에서 파견된 행정책임자는 부원장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그 뒤에 별다른 협의 없이 중방원장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모든 공문서에도 공식적으로 표기되었다.

중방원장이 국가를 홍보하는 민간외교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선발과정이 매우 엄격하다. 일차적인 선발은 중국의 교육기관 주도로 선발된다. 경력, 직급,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공자학원총부의 인가를 받는다. 대체로 파견되기 1년 이상 이전에 선임된 뒤, 수개월 동안 공자학원총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창기에

는 원장의 임기에 제한이 없었으나 지금은 최장 4년으로 정해져 있다.

중방원장의 초청, 비자발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담당한다. 그 자격은 교환교수나 초빙교수인 경우가 많다. 기관의 소속원이 되어야 부속기관인 아카데미에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양국 두 원장의 관계는 아카데미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원장은 그 기관의 책임자이고, 기관 안에서의 제반 행정을 책임져야 한다. 반면에 중방원장은 총부와 직간접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자칫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그 운영이 순조로울 수 없다.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위해 외국에 공동으로 설립된 공자아카데미의 특성에서 비롯된 갈등의 요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행정요원은 공자아카데미가 외국 대학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학에서 지원해야 한다. 전담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중국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두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중국과의 행정에서 중방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교내 행정을 처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두 나라 사이의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비교적 많고, 또 여러 행사에 따르는 제반 업무와 강사·수강생을 관리하는 일까지 담당한다.

### (3)교·강사

공자아카데미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중국어 교육이다. 언어의 보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의를 맡는 교·강사는 대부분 중국에서 파견된다. 공자학원총부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고, 선발된 교·강사는 의무적으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수당은 중국 본부에서 직접 지급된다.

이들은 경험과 자격에 따라 공파교사와 지원자강사로 구분된다. 공파교사는 중국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원을 파견할 때 부르는 명칭이고, 지원자강사는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과 대학원의 교생 실습생들이 파견될 때의 이름이다.

중국 각 대학의 한어국제교육과의<sup>6)</sup> 졸업생과 그 과의 대학원 재학생이 주요 대상자이다. 공파교사와 지원자강사는 수당과 대우에서도 차별이 있다.

중국 각 대학의 한어국제교육과는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학과이다.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예상 수요에 따라 짧은 기간에 여러 대학에 설립되었고, 그 예상 수요는 공자아카데미의 향후 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어국제교육과는 1985년 처음 설립된 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각 대학에 설립되었다. 2016년 현재 중국의 대학 2,879개 가운데 516개교에 설립되었고, 재학생은 8만여 명에 이르며, 1년 졸업생은 2만여 명이다.<sup>7)</sup> D대학교와 함께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한 하얼빈사범대학에는 2002년 대외한어과가 설립되었고, 한 해 모집 학생수는 30명으로<sup>8)</sup> 전체 120여 명이 수학과 있으며, 한 해 졸업생은 30여 명에 이른다.

중국 전역에서 한 해에 한어국제교육과를 졸업하는 2만여 명이 전공을 살려 진출할 수 있는 근무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각 대학의 해외교류학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가르치거나,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꿈꿀 수 있으나 졸업자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는 없다. 결국 공자아카데미가 주요 근무처가 되는 것이다. 이 학과의 졸업생들이 지원자강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sup>9)</sup>

## 2. 재정 운영

한 해의 예산액은 외국 교육기관과 공자학원총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외국 측은 사무실 유지비와 파견 직원의 인건비 등 운영비 위주의 비용을 부담하고, 중국 측에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중국에서 파견되는 인원의 인건비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아카데미의 예산에

6) 학과의 명칭이 시기와 대학에 따라 대외한어과, 한어국제교육과, 한어국제추광학과 등으로 불린다.

7) 中國教育部, “新東方高考院校庫”.

8) 哈爾濱師範大學, “哈師大招生網”.

9)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는 잡히지 않는다.

예산 가운데 외국 교육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은 대부분 운영비에 해당되어 대체로 고정적이고, 중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항목과 액수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한 해의 예산은 일정 기간에 신청하고, 공자학원총부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정해진다. 확정된 예산은 공자아카데미가 소속된 외국 교육기관에 송금되고, 그 교육기관의 회계 원칙에 따라 집행된다.

공자아카데미는 전적으로 중국에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의 내용대로 자부담금이 중국에서의 지원금에 상당한다.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파견 인원의 숙소 비용 등이 주요 지출 항목이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급하는 공자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자학원총부와 양국 교육기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자아카데미의 성격이 그렇듯이, 행정의 과정은 이중성을 띤다. 외국 교육기관 안에서의 행정과 중국 공자학원총부와의 행정을 모두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공자학원총부와의 행정은 대부분 중국 측 원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말에 이루어지는 예·결산은 중국 정부 회계 행정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정리되고, 이사장인 교육기관의 책임자와 양측 원장의 날인을 거쳐 총부에 보고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공자아카데미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기구이다. 외국 교육기관 소속기구이면서 주요 의사 결정은 양국 교육기관의 책임자들로 공동 구성된 이사들의 전적인 합의를 전제로 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시 공자학원총부의 승인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 또 책임자인 원장도 양쪽 나라의 두 사람이고, 행정요원은 외국 교육기관 소속이지만 중국어 강의 요원은 중국에서 파견된 인원이다. 두 원장에 의해 외국 교육기관과 공자학원총부에서의 행정이 각기 이루어지고, 행정요원과 교육요원이 구분되어 있다. 예산의 일부가 중국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계행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부속기관

이기도 하고, 중국 공자학원총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지도를 받는 기관이기도 하다.

#### IV. 활동 내용

공자아카데미는 다른 나라에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한다.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sup>10)</sup>

- ①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해 중국어를 가르친다.
- ② 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중국어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한다.
- ③ 중국어능력시험(HSK 등)을 실시한다.
- ④ 사회 각계 인사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과 영역의 중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 ⑤ 학술활동과 기타 중국어 및 중국문화와 관련된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 ⑥ 중국 영화 등 영상물을 상영한다.
- ⑦ 중국 유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 ⑧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중국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요컨대,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된 나라의 국민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강사를 양성하며,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중국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연관된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역할의 하나이다. 그동안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중국어 교육 분야

###### (1) 교·강사

중국어 교육은 파견된 교·강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대학의 교양 중국

10) “공자아카데미 합작 설립에 관한 협의서” 제4조.

어를 담당하기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와 같이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강좌를 맡기도 한다. 또 공자아카데미와 협력 관계를 가진 초·중·고교에 파견되어 중국어 수업을 담당한다.

2007년 11월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개원한 뒤부터 2017년 10월까지 10년 동안 중국에서 파견된 중국어 교육 요원은 교수 3명과 공파교사 10명, 지원자강사 51명 등이다. 파견 교수 3명은 모두 하얼빈사범대학 재직교수이고, 전공은 중국문학과 일본어이며, 여성들이었다. 2명은 2년 동안 근무하였고, 1명은 1년 4개월 근무하였다. 2명이 한국어에 능통하였다. 현재는 파견 교수가 없는 상태이다.

공파교사는 각 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다. 이들의 재직기관과 전공은 다양하다.<sup>11)</sup> 전공별로 나열하면, 한어국제교육, 중문학, 일본어, 역사, 교육학, 그리고 한국어교육 등이다. 공파교사는 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다는 자격 조건이 되면, 한어국제교육 전공자에 국한되지 않고 파견되었다. 그 동안 근무했던 10명 가운데 2명이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 근무하였고, 나머지는 서울과 경기도의 각 고등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sup>12)</sup> 모두 여성들이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는 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sup>13)</sup> 28개월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지원자강사는 2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본래 의미의 지원자강사이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고, 공자아카데미와 본인의 합의에 따라 2년 연장할 수 있다. 둘째는 한어국제교육 전공 대학원생으로 1년 임기의 교생실습생이다. 개원 뒤 10년 동안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 파견된 지원자강사 51명 모두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공파교사의 중국 재직 기관은 하얼빈사범대학,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국제한어학원, 하북형태외국어학교, 흑룡강금융학원, 흑룡강민족학원, 하얼빈시동력조선족초등학교, 장춘시용문교육배훈학교 등이다.

12) D 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파견한 교사가 근무한 학교는 서울의 D-S 고교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J 고교를 포함하여 9개교로 모두 11개 고교이다.

13) 7년을 근무한 한 교사는 개원 초창기 근무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들어와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은 2년 근무 뒤 희망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먼저 학력별로는 석사 4명, 석사과정 재학 27명, 학사 20명 등이다. 석사과정 재학생 27명은 교생실습생으로 파견되었다. 학교별로는 하얼빈사범대학 졸업·대학원재학생이 45명으로 압도적이다.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한어 국제교육 전공자가 32명이고, 19명은 기타 전공자들이다. 2명이 남자, 49명이 여자 강사이다.

현재 근무 중인 강사 8명을 제외하고,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20여 개월이다. 교생실습생으로 파견된 대학원 재학생은 규정에 따라 1년만 근무할 수 있고, 일반 지원자강사는 1년의 기본 근무 기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2년을 연장하여 36개월을 근무한 강사는 총 8명이다. 파견 당시의 지원자강사는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에 해당된다. 초보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는 6명으로 전체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원자강사 대부분은 중국어 교육 경력이 없고, 일부 있다하더라도 아주 적은 편에 속한다. 모두 공자아카데미에 파견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중국어 교육을 하는 셈이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초보 지원자강사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숙련도가 높아질 무렵에는 정해진 임기가 끝나버리기 마련이다. 대학원 교생실습생과 같이 1년을 근무할 수 있는 강사들은 말 그대로 실습에 그치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공자아카데미와 수강생의 입장에서 보면, 경험이 없는 초보의 강사들만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이다. 공자아카데미에서는 이들의 비자수속·외국인등록·보험 등의 업무를 반복해야 되고,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되풀이된다.

수강생들이 몸소 겪고 느끼는 초보 강사들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처음 중국어를 대하는 수강생들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상당 기간 여러 강사들에게 중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수강생들은 강사의 수준과 능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중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자아카데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속적인 수강생이 많지 않은 것도 이의 영향이 크다. 중국 교육부에서 선발된



원어민 강사에 의한 중국어교육이라는 장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강사들의 근무 뒤 진로문제도 심각하다.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의 진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원자강사 29명 가운데 11명이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2명이 다른 공자아카데미에 근무하였으며, 8명이 중국의 교육기관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5명이 기업체에 입사하였고, 2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직 소속이 없는 강사가 1명이다. 공자아카데미 근무 뒤 중국어 교육 부문에 종사하는 강사는 약 34%이고, 다른 공자아카데미에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 2명을 제외하고, 중국의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전공은 한어국제교육이 아니라 중국어 전공자들이다. 한어국제교육 전공자가 계속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상당수가 한국 대학의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는 것은 공자아카데미에서의 근무는 인생 진로에서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반증이다. 구직자를 포함한 28%에 해당되는 8명은 전혀 다른 직종으로 진출하였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현재 공자아카데미의 강사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진 자들의 희망 직종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능력 있는 강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자아카데미를 중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 (2)교재

공자아카데미의 중국어 교육에 사용할 교재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강사와 수강생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고, 교육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재가 사용되었다. 초창기에는 다른 중국어 교육기관에서 쓰는 교재들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 활용되었다. 그러던 중 공자아카데미에 관련된 교수들이 저술한 교재가 출판되었다.<sup>14)</sup> 이 뒤로는 이것이 주교재로 쓰

였다. 초창기에 커리큘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수강생도 적어 교재로 인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적절한 교재와 커리큘럼이 요구되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중국어 교육 전공 유학생을 고용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실정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그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 사용되었다.<sup>15)</sup>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에 따라 파견 강사들이 늘어났다. 이들을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교재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들의 의견이 보다 현실적이었다. 이들의 의견에 따라 지금의 교재가 채택되었다.<sup>16)</sup>

공자학원총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교재들을 보내왔다. 대부분 중국어 교육 관련 도서이고, 참고도서와 교구들까지 포함하면 수십여 종에 이른다. 사전류도 여럿이고, 주목할 만한 교구들이 있었다. 교재 가운데에서는 중국국가한판 중점 항목이고, 공자아카데미 주간 교재인 《장성한어(長城漢語)》가 대표적이다. 북경언어대학에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대외한어교학 모델로 꼽힌 권장 도서였다. 이 밖에도 한판의 기획 교재도 있었다.<sup>17)</sup>

그러나 이들 교재와 교구들은 현장에서 쓰인 적이 거의 없다. 중국에서 보내온 교재들에 대한 수강생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 요컨대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구성, 삽화의 내용, 인쇄의 질 등의 수준이 한국에 나와 있는 교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HSK반의 교재로는 공자학원총부에서 발간한 것이 사용되었고,<sup>18)</sup> 이후에는

14)홍화·한인희, 『This is Chinese』, 서울: 뉴런출판사, 2008. 하얼빈사범대학, 쑤저우대학, D 대학교 교수들이 공동 연구하여 집필한 교재이다.

15)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외 지음, 『차이나 파노라마』, 서울: 동양문고, 2003.

16)馬箭飛 외 지음, 변형우 외 옮김, 『신공략 중국어』, 서울: 다락원, 2005.

17)周小兵 編, 『STEP BY STEP CHINESE』, 北京: 華語教學出版社, 2006.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의 교·강사들이 연구하여 집필한 교재가 쓰였다.<sup>19)</sup> 공자아카데미에 근무하는 교·강사 모두가 동원되어 기존 출제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추세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다.

교재 이외의 여러 종류의 교구를 사용하기에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 수강생들의 요구에 맞춰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커리큘럼을 소화해야 하는 교육실정에서, 교재만을 소화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구나 참고자료를 사용할만한 여유가 없었다. 다만 공자아카데미의 교·강사가 파견된 고교에서는 교구를 활용한 수업이 일부 진행되었다.

장기적으로 중국어 전문 교육기관인 공자아카데미의 위상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중국어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작업의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3)교육 프로그램

#### ①상설 중국어 수강반

공자아카데미 안의 중국어 수강반은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중고급반, 프리토킹반, HSK반으로 구분되어 짜여졌다. 각반 모두 월 20시간 기준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주중에는 월·수·금, 화·목·금 반으로 짜이고, 금요일 수업은 격주로 열리는 시간배정이다. 수강생은 매주 2~3일 아카데미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각 수강반의 수업은 파견된 교·강사들이 담당하였다. 비교적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교사들이 기초반과 초급반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수당을 중국 본부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공자아카데미에서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다만 1주일 동안 16시간 이상을 강의할 경우에는 그 초과 시간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되었다.

수강생의 대부분은 기초반과 초급반에 집중되었다. 연령대로는 초등학생에

18)孔子學院總部/國家漢辦 編制, 『HSK 真題集』,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4.

19)D 대학교공자아카데미 지음, 『新 HSK 실전문제집』 3·4급, 서울: 넥서스 CHINESE, 2014.

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대학생이 70%에 이른다. 남녀의 구분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고등학생 이하는 중국어 전공을 살려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대학생들은 유학과 취업을 위해 중국어를 공부하였다. 그밖에는 중국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이들의 수강 기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들에 비해 개인적인 취향으로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의 수강 기간이 비교적 길었다.

#### ②D대학교 재학생 특별 프로그램

D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종류의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중국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2013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되어 매년 하·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2차례 진행되었다. 중국어를 익히고, HSK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7년 8월까지 총 10차례 실시되었다. 방학 동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일 월~목요일 하루 4시간씩 총 60시간으로 짜였다. 회화 초·중급, HSK 초·중급 등 총 4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공자아카데미 교·강사가 모두 동원되었다. 매년 80여 명이 지원하였고, 출석률은 80% 이상이었다.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해가 거듭될수록 지원자가 늘어나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자아카데미가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D대학교에서는 2005년부터 재학생 누구나 한 학기 동안 중국 대학에 유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쑤저우대학과 하얼빈사범대학에 매학기 수백 명의 재학생을 모집하여 파견한다. 이들 가운데 희망 학생들에 대한 예비교육을 공자아카데미에서 담당하였다. 파견 직전의 방학 기간에 이루어졌다. 중국의 문화 및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적응을 위한 중국어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4)학술토론회

2010년부터 공자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중국어교육 학술 토론회가 매년 D대

학교에서 2일 동안 열리고 있다. 중국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 교강사가 참가 대상이고, 그 동안 매년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첫째 날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 있었고,<sup>20)</sup> 분야별로 조를 나누어 세미나를 가졌다. 두 번째 날에는 주변의 명소를 탐방하는 일정이다.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집에 실려 발간되었다.

중국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벌이는 토론회는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초보적인 강사들은 이 자리에서 중국어 교육에 필수적인 내용을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 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선후배, 동료들 사이에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이기도 했다.

## 2. 문화 활동 분야

### (1) 문화제

중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은 공자아카데미의 기본 업무이다. 매년 열리는 문화제를 통해 중국의 여러 문화가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일반적으로 차 마시기, 전통공예와 서예, 음식 만들기, 전통의상 입어보기, 악기 연주 등이 주요 항목이다. D대학교의 중국학과와 같이 문화제를 개최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술제, 문화특강, 각종 공연 등이 열렸다.

10년 동안 공자아카데미에서 주관해서 열린 문화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중국 문화제 개최 일람(2008~2017)

연번	행사명	날짜	내용
1	제1회 중국문화제	2008. 5	D대학교 중국학과 학술제
2	희희낙락 FESTA '중국문화의 이해'	2013. 10 (4차례)	다도체험, 민간전통공예(전지), 음식 만들기, 전통의상(치파오) 입어보기

20)그 동안 있었던 특강의 주제는 〈漢語作爲第二語言法教學概說〉, 〈從指示時間到認知參照點〉, 〈과학연구의 양대 기본원칙〉, 〈지역문화와 중국어 현지화〉, 〈中華普世價值與未來人〉, 〈泛指性量詞'枚'的歷時演變研究〉 등이다.

3	공자아카데미·중국학과 공동 주최 중국문화제	2013. 11	중국특강, 원어연극, 말하기대회
4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의 달	2014. 9	중국특강, 원어연극, 말하기대회
5	공자아카데미·중국학과 공동 주최 중국문화제	2015. 11	중국학과 학술제
6	중국문화·중국어 체험 교실	2016. 4~8	서울북부지역 소재 5개 초중고 학생 대상 중국문화체험행사
7	중국문화제	2016. 11	중국어노래경연대회, 중국어말하기대회, 중국어연극, 중국전통악기 감상
8	공자아카데미의 날 (CHINADAY)	2017. 9 (2일간)	중국학과 학술제, 유학생장기자랑대회

공자아카데미에서는 개원 초기 D대학교 중국학과 학생회와 함께 문화제를 처음 개최한 이래 2013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문화제를 열었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학과 문화제가 정례화되어 정착되었다. 정규 학과 수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를 잡았다.

공자아카데미에서 파견된 교·강사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도 수시로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고, 매년 2차례 중국에 관심을 가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여기에 필요한 문화 용품은 모두 공자아카데미에서 지원되었고, 본원의 강사가 파견되기도 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중국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 (2)음악·연극 공연

예술 공연도 여러 차례 열렸다. 먼저 음악·경극·무용 공연은 중국에서 선발된 각 대학 예술단이 직접 방문하여 공연하였다. 하얼빈사범대학, 산둥대학, 대련외국어대학, 동제대학, 동북사범대학 등의 공연단이 공연을 펼쳤다. 전문가들의 공연이어서 그 수준이 높고, 직접 볼 기회가 흔하지 않아 관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중국현대희곡전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준 높은 중국 문화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S연극협회와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의 희곡을 번역하여 S

연극협회 소속 극단을 선발하여 공연하도록 했다. 2014년 11월 처음 시작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의향서가 체결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현재 중국의 인기 있는 작가의 작품을 공연하고, 작가를 직접 초빙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sup>21)</sup>

중국전통악기 연주회에서는 고쟁, 비파, 피리, 이호 등이 공연되었다. 한국에 있는 전문연주자와 유학중인 해당 악기 전공 대학원생을 초빙하였다.

〈표 2〉 음악·연극 공연 일람

연 번	행 사 명	날 짜	내 용
1	강의와 해설이 있는 경극 순회 공연	2009. 10	해설을 겸한 경극 공연
2	하얼빈사범대학 공연단 중국전통예술공연	2012. 5	사자춤, 중국고전악기, 무용
3	대련외국어대학 공연단 공연	2013. 11	무용, 음악, 소수민족 의상 패션쇼 등
4	산둥대학 민악단 공연 지원	2014. 9 (2차례)	중국민족음악단 한국순회공연
5	제1회 중국현대희곡전	2014. 11 (5일간)	정서림의 〈압박〉 호적의 〈종신대사〉 진대비의 〈애국적〉
6	동제대학 학생예술단 중국 전통문화 공연	2015. 10	중국 전통악기합주, 민가, 무용 등
7	제2회 중국현대희곡전	2015. 11 (14일간)	중국현대희곡-후샤오리 작품 〈고양이와남자,그리고강아지와여자〉 〈어젯밤부터오늘새벽까지〉 〈두형제의아수라장〉
8	의정부 시민과 함께하는 한 중 문화의 밤	2015. 4	중국전통악기 및 한국국악 공연
9	동북사범대학 중국예술 종합 공연	2016. 6	중국전통악기연주, 중국소수민족춤, 무 술 등
10	제3회 중국현대희곡전	2016. 10 (14일간)	중국희곡작품무대상연 〈두형제의아수라장〉, 〈승관도〉
11	노원구민과 함께하는 중국전 통악기연주회	2016. 11	중국전통악기의 특징을 살린 독주곡, 영화·드라마OST 등 공연

21) 惠曉立이 초청 작가였고, 그의 작품 〈고양이와남자, 그리고 강아지와여자〉, 〈어젯밤부터 오늘새벽까지〉, 〈두형제의 아수라장〉 등이 공연되었다.

### (3) 전시회

공자아카데미 개원 뒤 처음 열린 전시회가 중국현대판화전이였다. 하얼빈 인근의 북대황 일대에는 일찍이 판화 예술이 발달하였다. 건국 직후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동원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술의 하나로 들어온 판화가 예술성을 더해가면서 명성을 얻었다. 2008년 12월의 중국현대판화전에는 27명의 유명 작가 작품 54점이 전시되었다. 이듬해에는 그 작품들을 다시 전시하는 두 번째 전시회가 열렸다.

2010년에는 중국의 언어·문화와 관련된 도서·용품 전시회를 서울·경기 일대의 여러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개최하였다. 각종 교재와 사진류, 교학 도구, 전통문화 용품들이 전시 품목이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전통복장을 비치하여 학생들이 취향에 따라 골라 입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을 모았다. 또 여러 종류의 중국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판화전에 이은 미술전도 이어졌다. 2012년 11월에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한중미술교류전이 열렸다. D대학교 미술학부와 하얼빈사범대학 미술학원의 교수·대학원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양국의 미술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였다. 2014년 11월에는 한중학생미술교류전이 열렸다. 여기에는 두 학교 미술 전공 학생들의 작품들이 선을 보였다. 또 2015년 가을에는 하얼빈사범대학 사진학과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예술세계를 함께 찍다’라는 주제로 교수와 재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하얼빈사범대학의 미술대학은 중국에서도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 교수들이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뜻이 깊다고 하겠다. 또 학생들의 교류전에서는 전공 학생들이 외국 대학의 같은 전공 학생들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4) 영화상영 및 영화제

중국 영화 상영은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행사로 시작되었다. 연극영화과와 협력하여 중국 영화의 현재 상황을 엿볼 수 있는 90분 분량의 〈西單女孩〉라는 작품을 선정하여 상영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3백여 명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로부터 매년 영화상영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듬해 열린 제2회 상영회에서는 〈飲食男女〉라는 작품을 상영하였고,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중국 음식에 조예가 있는 유명 연예인을 초빙하였다. 중국 영화와 중국 음식에 대한 소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3회 영화상영회는 2014년 가을에 열렸다. 여기에서는 〈로스트인베이징〉과 〈華果〉 등 두 작품이 소개되었다.

3차례 영화상영회 끝에 2016년에는 본격적인 영화제로 행사 규모가 확대되었다. ‘중국독립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대학로의 중국영화 전용 극장에서 2일 동안 열렸다. 국내 유명 영화감독의 특강에 이어 몇 편의 중국 중·단편 영화가 상영되었고,<sup>22)</sup> 국내 영화관계자들의 세미나와 특강이 진행되었다. 중국영화로 특정한 영화제로는 처음이었고, 많은 관심을 모았다.

#### (5) 중국문화학교

공자아카데미 개원 초창기인 2009년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문화학교가 운영되었다. 홍보를 위해 유명 인터넷신문사와 손을 잡았다. 분야별 전공자 16명으로 강사를 구성하고,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일정 장소에서 강의를 계속했고,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강의도 가졌다.

살펴본 바와 같이,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의 문화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문화 전반으로 폭을 넓혀 왔고, 그 수준을 높이려고 꾸준히 노력하

22) 상영영화는 이씨 아저씨의 정과 맛(李喙的情与味), 백마연가(白马情歌), 해바라기(太阳花), 꿈을 쫓는 구름(追梦云朵), 양봉인(养蜂人), 큰 나무 밑의 아이(大树下的小孩), 신부(新娘), 고개 숙인 삶(低头人生), 희망(乡愿), 다른 이별(另一种离别), 대한(大寒), 써차이(酸菜), 평범한 사랑(庸爱), 활로(生路), 토론토를 껴안다(拥抱多伦多), 구급처치(急救), 피아노(钢琴), 아이(囡) 등이다.

였다. 그 결과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에게 중국의 문화 전반이 소개되었다. 매년 열리는 문화제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전통악기, 민속 공연에서부터 현대의 연극, 영화, 미술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의 폭이 비교적 넓었다고 할 수 있다.

### 3. 언어연수 및 문화탐방

#### (1) 언어연수

언어연수는 강의실에서 익힌 중국어 실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이바지한 바가 크다.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운 학생들 대부분이 중국에 가본 경험이 없고, 중국인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언어연수는 중국을 방문하여, 현지의 강사들에게 중국어를 배우고, 또 주요도시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참가 학생들은 항공료를 부담하고, 중국에서의 체류 비용 일체는 공자학원총부에서 지원되었다. 현지에서의 언어연수와 문화탐방 안내는 하얼빈사범대학이 담당하였다.

2009년 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처음 실시된 언어연수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중고교와 대학의 재학생 25명이 참가하였다. 하얼빈사범대학에서 언어연수를 받고, 하얼빈 일대를 둘러보는 5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뒤로 매년 언어연수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기간이 14일로 늘었다. 방문 지역도 길림성과 북경이 추가되었다. 방학을 이용한 2주 동안의 언어연수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 (2) 문화탐방

공자아카데미 프로그램 가운데 호감도가 높은 것이 바로 문화탐방이다. 교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서로 교류하고, 명소를 탐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항공료 등은 개별 부담하고, 중국에서의 체류비는 지원받았다. 초창기에는 공자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이 있는 하얼빈

과 인근의 내몽고 일대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두 차례 이루어졌다. 탐방단은 주로 서울·경기 지역의 고교 교장들이었다. 여름에는 하얼빈사범대학과 몇 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상호 학교의 상황과 구체적인 교육 실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하얼빈의 중심지와 인근의 역사 유적지를<sup>23)</sup> 돌아보았다.

기차를 이용한 내몽고 초원으로의 탐방 여행은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후룬베얼 초원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말타기 등 초원 문화체험을 한 뒤, 중국 동부 최북단의 러시아와의 국경, 후룬베얼 호수, 만주리 시내 등을 돌아보고, 치치하얼의 찰롱습지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동절기에는 하얼빈 주변의 명소와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빙설대축제가 탐방 대상이다. 그밖에도 하얼빈을 경유하여 북경, 서안, 칭해 일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초창기 1년 2차례에 걸친 탐방 행사에는 30여 명의 교장들이 참여하였다. 뒤에 1년 1차례로 줄어들고, 그 허용 인원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문화탐방에 대한 유익성이 널리 알려져 참여 희망자가 크게 늘었으나,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

문화탐방 행사를 통해 참여한 고교 교장들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공자아카데미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였고,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열었으며, 문화 용품을 보내주어 나름대로 중국 문화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와의 협력관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 4. 각종 대회

### (1)말하기 대회

23)중앙대가와 유명 건축물인 소피아성당, 하얼빈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일제의 인체실험이 자행되었던 731부대, 재래시장, 송화강변의 스탈린 공원, 근처 금나라 발원지인 아성시의 금상경박물관과 조선족 마을 등이 방문지였다.

말하기 대회는 언어 교육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대회의 하나였다. 외국어인 중국어를 배우고, 이의 구사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모든 공자아카데미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였고, 공자학원총부에서도 매년 세계적인 대회를 열었다.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매년 열었다. 전국적인 대회이고, 여기에서의 수상 경력이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어 많게는 180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에 따라 관심이 줄어들어 2015년 이후에는 다른 행사로 대체되었다.

## (2)중국노래 경연 대회

연예에 관심이 많은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된 행사였다. 고식적인 말하기 대회에 비하여 역동적이고 흥미가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3년 첫 대회에 유명 연예인이 진행을 맡아 연예 행사의 흥취를 느끼게 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대학생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다. 첫 대회 예선 전에 221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86명, 2016년에는 146명이 지원하였다.

## (3)중국 상식 퀴즈 대회

고등학생들에게 중국에 관한 상식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고, 더욱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각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열리는 TV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진행하였다. 화이트보드와 필기구를 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하나 차례로 낸 퀴즈의 답을 적게 하여, 매 퀴즈마다 정답을 적은 학생이 남게 하는 방식이다. 끝까지 남은 학생이 우승자이고, 공자아카데미 원장 명의의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었다.

그 동안 퀴즈대회는 2013년 7월과 10월 4개 고등학교에서 각 1차례씩 열렸다. 2개 학교에서 120명씩 참여하였고, 2개 학교에서는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 5. 장학생 선발 추천

중국의 정부, 공자학원총부, 각 성정부의 장학제도에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장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국·공비 장학생 선발 추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도별 장학생 선발 추천 인원 현황

유형 년도	석사	본과	1년 언어연수	1학기 언어연수	4주 언어연수	합계
2009	23	5	2	2	86	118
2010	11		6			17
2011	1		4		6	11
2012	6	5	5	2		18
2013	11		8	7		26
2014	6		7	5		18
2015	5		10	2		17
2016	2		11	4	10	27
2017	3		6	4		13
합계	68	10	59	26	102	265

표에서 보듯이, 9년 동안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추천하여 중국의 국·공비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전체 265명에 이른다. 초창기 첫해에는 118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중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장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체 265명 가운데 D대학교 재학생은 95명으로 36%를 차지한다.<sup>24)</sup> 학교 안의 부속기관으로 재학생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연수과정은 중국어를 현지에서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어 전공 학생들이나 일부 일반인에게 매우 인기 있는 항목이었다.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정부와 공자학원총부, 그리고 각 성정부에서 장학생에게 지급한 장학

24) 석사과정 68명 중 26명, 1년 연수 59명 중 14명, 1학기 연수 26명 중 8명, 4주 연수 102명 47명 등이다.

혜택은 우수한 편에 속한다. 석사과정 장학생에게는 2년 동안 학비, 기숙사비(2인실), 생활비, 의료보험료 등이 제공되었다. 한화로는 대략 2천 5백만 원 가량에 해당된다. 본과 장학생에게는 4년 동안 약 4천 8백여만 원이고, 연수생에게도 그 기간에 해당되는 같은 조건의 혜택이 주어졌다.<sup>25)</sup> 중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체류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되었다. 장학생 선발 추천은 공자아카데미가 중국 대학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활동이었다.

## V. 맺음말: 발전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공자아카데미의 명칭과 설립 방식이 갖는 특성, 아카데미의 운영 요원 및 재정 운영, 10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공자아카데미의 설립 목적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따라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는 그 동안 대체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겠다.

우선, 중국에서 파견된 행정·교육 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비자 발급, 숙소, 통신 등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강의실과 교구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명절과 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모두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의 명소를 탐방하는 기회도 가졌다. 같이 근무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는 점도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교육 방면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다. 소속 재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한 특별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였고, 각 고등학교에 파견된 교·강사들은 직접 수업에 참여하였다. 공자아카데미가 자리한 서울·경기 북부 일대의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25) 1년 연수생에게는 59,350위안(한화:10,683,000원), 1학기 연수생 28,050위안(한화:5,049,000원), 4주 연수생 3,800위안(한화:684,000원) 등이다.

문화 방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정기적으로 열린 문화제는 내용면에서 기존의 문화제와 질적인 수준에 차별이 있었다. 중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각 대학 공연단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전통악기 연주회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 전문가들과 함께 한 영화상영회와 영화제에서 중국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 시험적으로 운영한 연극제는 중국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말하기대회와 노래대회 등 각종 대회는 많은 학생들이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앞으로 공자아카데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각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한 나라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비자 발급 문제를 비롯한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자아카데미는 대학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에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달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 관심을 가진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교육기관 사이의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어 교육 활동에서 지적될 사항은 강사의 자질과 근무 기간 문제이다. 중국어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들이 교육을 담당하여 교육의 질에 한계가 있었다. 또 공자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을 통해 수강생을 만족시킬만한 능력이 갖추어질 시기에 이르면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하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요구된다. 한국인과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공자아카데미가 주도해서 편찬한 교재가 필요하다. 한국인에게 적합한 공자아카데미 명의를 교재를 사용하여 중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강사와 교재 모두 공

자아카데미의 위상과 명예에 직접 관련된다.

문화 활동은 크고 작은 여러 행사를 치루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중국의 일상적인 생활 문화와 전통문화가 많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하는 것과 함께 고급문화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예술성이 높은 무대 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공연 그 자체를 감상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중국 문화와 함께 공자아카데미를 널리 알리는 데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명망이 높은 예술단의 공연을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공자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중국에 관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공자아카데미를 알고 있다. 아직도 공자와 유교 사상을 다루는 대학의 연구·교육 기관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방면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널리 알리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자학원총부, 대학, 공자아카데미가 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 각 공자아카데미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하지만, 공자학원총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자아카데미와 그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희, “중국과 대만의 문화외교-공자학원과 대만서원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65, 2013.
- 곽익비, “한일 공자학원의 운영실태 비교연구”, 원광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애경,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국가전략』 14-2, 세종연구소, 2008.
- 김은환, “중국 공자학원의 현지 법인화에 대한 고찰” 『中國法研究』 21, 2014. 중국법학회
- 김일수·최형룡,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자학원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73, 2014.
- 박운석·이승우, “공자학원의 문화전파 이론과 모델” 『동아인문학』 25, 2013.
- 신종호,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국가전략』 15-1, 세종연구소, 2009.
- 신진호, “중국문화의 세계화 전략-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중심으로” 『중국지식네트워킹』 7, 2016.
- 유상철, “중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중국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 윤상희, “공자학원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중앙대 중국지역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영학, “중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 성과 및 한계” 『동서연구』 21-1, 2009.
- 이옥연, “중국, 문화전략으로 대외 이미지 개선 노력” 『Chindia Journal』 67, 2012.
- 이종철,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에 대한 고찰-원조외교와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4-2, 2011.
- 이희옥, “중국공공외교의 확산: 체계와 목표” 『중국학연구』 54, 2010.
- 임규섭, “한국의 공자학원에 대한 인식-신문, 일반인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30,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7.
- 전가림, “중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과 그 영향력 : 공자학원과 방송 미디어매체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50, 2010.
- 차미경, “중국문화원 공자학원의 설립과 중국문화의 세계화 전략” 『중국문화연구』 10, 2007.
- 최은진,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 이미지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 『중국학연구』 72, 2015.
- CHEN PENG·박수정, “대외중국어 교사의 역량 분석 : 한국의 공자학원 교사를 중심으로” 『韓國敎員敎育研究』 31-3, 2014.
- 李保高, “중국 공공외교와 공자아카데미” 『중국어문학논집』 88, 중국어문학연구회, 2014.
- 钱 兢, “韩国内孔子学院的运营状况及效果” 『한중인문학연구』 35, 2012.

## Abstract

###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Confucius Institute in Korea -Focusing on Confucius Institute at D University-

Kim, hyung-ki · Jho, dae-won(DAEJ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Confucius Institute, which was operated for 10 years. Confucius Institute is a new organization that is separate from the Chinese Cultural Center and aims to effectively communicate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Confucius Institutes could be established in many countries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of the nature of being established as a private organization without being restricted by the number. Although the organization is an affiliate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onfucius Institute has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its operation,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Chinese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 and engages in activities related to China. In the case of D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instructors dispatched from China were found to get low satisfaction level from the educator in class because there were many beginners. Th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suitable for the level of the students was desperately required. Despite these difficulties, it can be said that Confucius Institute has faithfully carried out its original role of introduci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to various classes of Koreans. For the full-fledged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lay a wide role in mutual exchange betwee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two countries.

Key words: Confucius Institute, Chinese Language-Culture, Education of Chinese, Dispatched Instructors, Cultural Perform, Mutual Exchange, Direction of Development

투고일 : 2017년 10월 31일 · 심사일: 2017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22일